

Colossians #5: Rooted in Christ
Bo Stern-Brady
March 4, 2024

골로새서서 #5: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보스턴-브레이디
2024년 3월 4일

Colossians 2:6-15

When you were dead in your sins and in the uncircumcision of your flesh,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He forgave us all our sins, having canceled the charge of our legal indebtedness, which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he has taken it away, nailing it to the cross.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Colossians 2:6-15.

우리는 죄인이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로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소비된 법적 부채의 책을 파기하셨습니다. 이 부채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낙인찍어 우리에게 패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가셨습니다. 또한 권능과 권세를 해체하고,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대한 승리를 거둬 이를 공개적인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골로새서 2:6-15)

Paul's thoughts here can feel almost frantic...like if he was reading this out loud, he would be talking faster and louder as he moves toward the crescendo of the triumph over evil. And the words can swirl around as he teaches this deep, layered theology but in a 폴의 생각들은 여기서 거의 정신없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를 소리내어 읽고 있다면, 그는 악을 이기는 정점으로 향해 빠르고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들은 깊고 복잡한 신학을 가르치면서 뒤섞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You were dead. This is so unfriendly. So unwelcoming. But so true. The greek definition of dead here leaves no room for interpretation: You were a corpse. Lifeless. And what's the next thing? The very next thing? It's not. - You called 911 or you connected yourself to a defib machine...the very next thing is GOD MADE YOU ALIVE with Christ. This is all Him. All His work on the cross. Paul's writing is wordy and it can be hard to follow the thoughts clearly and know what connects to what. In this vers the main verb is the idea around which the rest of the verse revolves. So, let's start there: God made you alive.

너희는 죽었다. 이것은 매우 냉담하다. 매우 환영하지 않다. 그러나 매우 사실이다. 여기서 '죽었다'는 그리스어로 해석하면 해석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확합니다. 너는 시체였다. 살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은 무엇인가요? 정말 다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 너가 **911**에 전화를 걸거나 제세동기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모든 일입니다. 폴의 글은 말이 많아서 생각을 명확하게 따라가고 무엇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절에서 주 동사는 나머지 절이 중심을 돌아가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다.

That's the whole point of the verse. Around this theme Paul begins to tell us HOW God through Jesus raised us from the dead and into a life of freedom and wholeness. It says He "forgave us all our sins, having canceled the charge of our legal indebtedness, which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he has taken it away, nailing it to the cross. And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de a public spectacle of them, triumphing over them by the cross. ALL of these words are about ONE thing: God made us alive. And in all these words are four distinct things that God did through Jesus on the cross to make you alive:

이 절의 전체적인 의도입니다. 이 테마를 중심으로 폴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끌어내고 전체적이며 건전한 삶으로 안내하신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에게 대한 채무의 기록을 지워버렸다. 그 채무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고발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없었다. 그분은 권력과 권세들을 벗기고, 그들을 공개적인 스펙터클로 만들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리고 이 모든 말들 안에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행한 네 가지 구별된 일들이 있습니다:

1. He forgave us all our sins

In this sentence the word "all" belongs to the word "sins". He forgave ALL my sins. ALL your sins. None were excluded. This is different than the forgiveness we offer each other. Forgiveness here is the word "charizomai which could be translated

“gracing”...it’s the love of god unleashed to rescue all humans from their captivity in order to bring them into the liberated family of God. (Scot Mcknight)

그분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이 문장에서 **"all"**이라는 단어는 **"sins"**라는 단어에 속합니다. 그분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당신의 모든 죄를. 어느 것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용서와는 다릅니다. 여기서의 용서는 **"charizomai"**라는 단어로, "은혜를 베푸는"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을 그들의 갇힌 상태에서 구출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되어 그들을 해방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데려오기 위한 것입니다.

(스콧 맥나이트)

2. He cancelled the charge written against us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기록된 채무를 취소하셨다.

Cheirographon = handwritten document that refers to the debts that are held against you. The original language around this legal indebtedness is interesting. It means something that has been handwritten like a bond or a manuscript. This has the idea of an invoice that can't be paid. And Paul says that this document “stands against you” and “condemns you”.

Cheirographon은 당신에 대한 채무를 나타내는 손으로 쓰인 문서를 의미합니다.

이 법적인 채무 주변의 원래 언어는 흥미롭습니다. 이는 채권이나 원고와 같이 손으로 쓰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불할 수 없는 송장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은 이 문서가 "당신에게 대적하며 당신을 고발한다"고 말합니다.

Scholars debate what this document is that stands against us. Is it a debt we owe God? Is it something we owe the enemy? Is it the record of our wrongs and mistakes against others? Is it referring to the Torah or the law? Theories abound, and I have a theory as well and it brings all of these things together.

학자들은 이 문서가 우리에게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진 채무인가요? 우리가 적에게 빚진 것인가요? 우리의 잘못과 실수에 대한 기록인가요? 혹은 율법 또는 법에 언급된 것인가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며, 나 또한 하나의 이론을 갖고 있고 이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합시킵니다.

The definition that resonates with me here is “manuscript”. A manuscript is a story. And really, an invoice is also a story. The story of a purchase or a mortgage or some decision in your past that has consequences that write themselves into the story of your future. This document or cheirographon contains the things you owe because of the mistakes you’ve made or the things the enemy has pronounced against you and those things stretch into your eternity. The problem with the story that stands against us...this

story that speaks hopelessness and despair and constant working to pay off our impossible debts and addictions - is that this is not the story God had written over our lives or the lives of His people.

여기서 나에게 공감되는 정의는 "손고서"입니다. 손고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송장 또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구매 또는 모기지 또는 과거의 어떤 결정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이야기로 자신을 쓰는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서 또는 **cheirographon**은 당신이 한 실수 또는 적이 당신에 대해 선언한 일들로 인해 빛진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대적하는 이 이야기의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삶이나 그분의 백성의 삶에 쓰려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절망과 자포자기, 불가능한 빛과 중독을 갚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In Jeremiah 29, God promised the people of Israel - and we quote it often -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say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to give you a future and hope."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습니다. - 그리고 우리는 이를 자주 인용합니다 -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 세운 계획을 아노라 나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 계획은 너희를 번성케 하고 해하지 않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Ephesians 2:10 says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for good works in Christ Jesus...and that word "workmanship is the word for poem.

에베소서 **2:10**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대로 지으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위해 창조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으심"이라는 단어는 시(詩)를 의미합니다. I believe that God has a preferred destiny, or story, in mind for every one of us. The God who David said, knit us together in our mother's wombs and knew us before the foundations of the world...had a plot line in mind for us. The thing He had for us as a Father who made us and loves what He made, is certainly not a life of debt and death and bondage and heartache. It is certainly NOT a life of being chained to rules we couldn't keep trying to produce fruit that would only be enjoyed by others. He is a good, good author and His story is available to us. Because we have free will, other storylines are available o us as well. And we were getting tricked, constantly, into living into the wrong plot and the wrong page and Paul tells us in Colossians, that document STOOD AGAINST US and CONDEMNED us. "Stood against " = an active, aggressive

resistance. Condemned = An obstacle in the road. We had given into the lie of the storyline that was written that we were unworthy of love or hope or purpose. That we owed too much to ever live into the freedom of liberation. But He cancelled it, which literally means He scraped off our indebtedness. He erased all that was written against. He unwrote the charges against us and unbuild the obstacles in the way of our salvation. And then it says...

나는 하나님이 각각의 우리에게 선호하는 운명 또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 속에서 짜여졌으며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들고 그가 만든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갖고 계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빛과 죽음, 봉사과 심장고통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이들에게만 즐겨지는 열매를 생산하려고 애쓰며 지키기 어려운 규칙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그분은 선한 작가이시며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줄거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헛된 플롯과 잘못된 페이지에 살아가도록 속이지 않도록 계속 속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 문서는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비난했다. "대적하다"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비난당하다"는 길에 있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이나 희망 또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짓말에 빠져들고 많은 것을 갚아야 하며 해방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짓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을 취소했고, 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부채를 제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모든 것을 지웠다. 우리에게 대한 혐의를 지웠고 우리의 구원의 길에 있는 장애물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3. He took it away

Same idea here, but a slightly different term. The word "away" here evokes presence or proximity - like this storyline was constantly rolling through our head, creating shame and depression and heartache. But in God's grace, this accusing voice has been lifted and taken away. The story is being rewritten and the memory of the old story is being obliterated. Beautiful! How did God do this? By nailing it to the cross. (Titulus - sign on the cross - name and crime. Normally one nailed accusations to the cross in order to condemn, but here the nailing of the accusation to the cross releases the person from those accusations! (McKnight) The innocent one assumes the charges against the guilty ones so the guilty ones become the innocent ones. Jesus shoulders the accusations against us so we don't have to experience them in death.

3. 그것을 가져갔다

여기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가져갔다"는 존재나 근접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이 이야기 줄거리가 우리의 머리 속을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수치와 우울감, 심장고통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죄의 소리는 들리지 않게 들어갔고 가져갔습니다. 이야기가 다시 쓰이고 옛 이야기의 기억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했을까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음으로써. (티툴루스 - 십자가 위의 표지 - 이름과 범죄. 보통 십자가에 고발을 못 박아 비난하려고 했지만 여기서 고발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그 고발에서 자유로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맥나이트) 결코 죄가 없는 자가 유죄자들에 대한 혐의를 표면화시켜 유죄자들이 무죄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한 고발을 지닌 채로 그것을 견디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4. He makes a spectacle of them.

Now Jesus' work of rescue moves into the cosmic dimension. God disarms the powers and authorities. He makes a public spectacle of them and he triumphs over them on the cross. Each image grows in power and also absurdity - because God is TRIUMPHING over darkness by dying Himself. Jesus smuggles himself into humanity and blows up death from the inside.

Who are these powers? Scholars have lots of opinions, but scripture seems clear that they were supernatural and social structures then... and they also exist today.그들을

4.공개적인 모습으로 만든다.

이제 예수의 구원의 역사는 우주적인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권위를 무장 해제하십니다. 그들을 공개적인 모습으로 만들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시는 것입니다. 각 이미지는 권력과 동시에 터무니 없이 강해집니다 -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둠을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류에 밀반입하고 내부에서 죽음을 터트려 버립니다.

이 권능들은 누구인가요? 학자들은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그들이 그 당시에는 초자연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None of the rulers of this age understood it, for if they had,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the Lord of glory. 1 Cor. 2:8

이 세대의 지배자 중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했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1 코린도서 2:8**

Then the end will come,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after he has destroyed all dominion, authority and power.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1 Cor. 15:24-26

그런 다음 끝나리라. 그가 모든 주권과 권능과 권력을 파괴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라를 넘길 때입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기까지 통치해야 합니다. 파괴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1** 코린도서 **15:24-26**

For in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s; all things have been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Col. 1:16

그 안에서는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나 권능이나 군주나 관리자, 만든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으며 그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16**

He raised Christ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his right hand in the heavenly realms, far above all rule and authority, power and dominion and every name that is invoked, not only in the present age but also in the age to come. Eph. 1:20-21

그분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우편에 앉히셨으며 모든 주권과 권능과 권세와 주인이름뿐만 아니라 현재 나중의 시대에도 초월한 곳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1:20-21**

There is a world we can't see with our eyes - though we can see some of the results of it - and it's more real than this one. Supernatural power is at work in

Religious structures

Intellectual structures (-ologies + -isms)

Moral structures (codes + customs)

Political structures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결과 일부는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현재의 현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는 곳은

종교적인 구조

지적인 구조(-학과 -주의)

도덕적인 구조(규칙과 관습)

정치적인 구조

These structures form the scaffolding around our world and they are not inherently bad, but sin is still embedded inside them. The Church. - US - we are called to embody the

defeat of the powers and principalities at work in the structures of our world (Matthew 16:18). How? The way of Jesus. The upside down, love your world, love your God, love-your-enemy way of Jesus. The subversive, unstoppable way of Jesus. As we root ourselves in His love and goodness and truth...we begin to live the story He has always been writing over our lives.

이러한 구조는 우리 세계를 둘러싼 해체체를 형성하며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 우리 - 우리는 우리 세계 구조 속에서 작용하는 능력과 원칙들의 패배를 구체화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Matthew 16:18).

어떻게? 예수의 길. 예수의 역행, 네 세상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방식. 예수의 파괴할 수 없는 길. 그의 사랑과 선의, 진리 속에서 뿌리내리면 우리는 그가 항상 우리 삶에 쓰려고 했던 이야기를 살기 시작합니다.

All the days ordained for you were written in His book . Another document was written that stands against your flourishing - against your destiny. But you have been delivered from the power of that story. It has been scraped off the pages and nailed to the cross. The cross brings us back to our best and most beautiful realities.

당신을 위해 정해진 모든 날들이 그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쓰여져서 당신의 번영에 맞서는 - 당신의 운명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이야기의 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페이지에서 스크랩되고 십자가에 못으로 박혔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우리의 최상의, 가장 아름다운 현실로 되돌려 놓습니다.

Response: What is the true & beautiful story Jesus has written over your life? Are you living it? Is another story in the way? Let Him unwrite the shame and condemnation; let Him put pen to paper and begin to reveal the new thing that has always been His plan for your life. The new thing is the old thing. The original design. Plan A. To know Him and the power of his suffering and the fellowship of His resurrection. It's as close as your next thought, the next words that come out of your mouth could launch a whole new plot line - one of beauty and strength - and this chapter (and all the chapters that come after) will be called "The Gracing."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신의 삶 위에 쓰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살고 있나요? 다른 이야기가 방해되고 있나요? 부끄러움과 정죄를 지우도록 그에게 허락하십시오.

펜을 종이에 가져다 놓고 항상 그분이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새로운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도록 허락하십시오. 새로운 것은 곧 옛 것입니다. 원래 디자인. 계획 A. 그를 알고 그의 고통의 권능과 부활의 공동체를 알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당신의 생각,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은 전혀 새로운 줄거리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힘의 줄거리 - 그리고 이 장(그리고 그 후에 오는 모든 장)는 "은총의 장"이라 불릴 것입니다.

